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2019 활동이벤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초자연적 또띠아】
【다회님만】
【홍보관】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Behind Story】
【잡담코너】
【비평&추천】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Etc】 - 煥
【完 - 끝났어요!】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상처받은 엘의 유희 3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18. 22:46 조회 457

댓글 12 URL 복사

 이번화에 나오는 엘님입니다
학교에서 심심해서 그렸어요~
===
나는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집밖으로 나섰다.
한가지 다른게 있다면 오늘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게 아니라 혼자간가는것 정도?
평소라면 부모님이 데려다 주겠지만 오늘은 두분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나가셨다.

"혼자 와보니까 거리가 꽤 멀었네?"

나는 어린이집 버스가 오는곳까지 혼자서 걸어갔고 어린아이의 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어린이집 버스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문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 사람은 내 반을 맡은 담임이다

"청화야,오늘은 혼자왔네?"
"부모님이 바쁘셔서요, 저 혼자 왔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게 했네요"
"아니야~.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어서타"
"네"

내가 버스를 타자 저 멀리 친구들이 보였다.

"얘들아 않녕~"
"청화도 안녕~"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Beta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그렇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나는 항상 내리던 곳에 내렸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한후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지나가던 골목길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퍽!!"
"아악!!"

'!!뭐지?'

"아,빨리 내 놓으라고!"
"으윽!!그러니까 없다고 몇번을 말해!"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퍽"

골목으로 들어가보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키큰 남자가 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를 일방적으로 패고 있었다

말을 들어보니 돈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켜보다가 안되겠다 싶어 골목으로 들어가 내모습을 유지하던 마법을 풀었다
골목인데다 길이 꺽여 있었기에 카메라에도 걸리지 않고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마법을 해제하자 나는 원래모습으로 돌아왔다
지금 내모습은 이마에는 크로아첸이 라피스일적에준 서클렛과 비슷한디자인의 서클렛이 씌어져 있었고 통이 넓은 소매에 짧은 치마에 가죽벨트가 끼워져 있었다. 또 치마를 투명한 천이 둘러 싸고 있었고 어깨에서 무릅위까지 내려오는 긴 망토를 쓰고 있었다
목위에는 화려한 목걸이에 귀에 귀걸이,팔목에 팔찌까지 찬 화려한 모습이였다

"거기,도련님"

나는 골목길에서 나와 남자에게 다가갔다

"뭐..뭐야,넌!여자애는 끼어들지 말고 꺼져!"
"원래라면 그냥 꺼지겠는데 너 하는꼴을 못보겠네 내가"
"뭐야?!"

그는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나는 그것을 가볍게 피했다.
평범한 인간이 정령왕을 이기는건 불가능한 법이지!

나는 그 남자의 손목을 잽싸게 잡은뒤 뒤로돌려 꺽었다

"윽!!이거 안놔!"

하지만 난 그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놓으면 니가 또 이짓거리를 할게 분명하거든."
"그게 너랑 뭔상관이야!"
"상관 있지~.내눈에 거슬리거든. 뭣하면 내가 전치 1년정도로 만드는 친절을 베풀어 줄수 있어."

나는 밝게 말했다가 목소리를 급격하게 낮추어 싸늘하게 말했다

"히익!"

남자는 겁먹었다. 흔히들 말하는 다크엘을 마주했으니까

"너 이딴짓 하고 다니는거 나한테 또걸리면 그땐
..."
"...그땐..?"
"죽어"
"!!!"

내가 싸늘하게 말하자 남자는 몸을 벌벌떨고 동공이 흔들렸다.

"아..안할께.이,이것좀..이것좀 나줘!"

그말을 듣고 나는 손목을 풀었다
그리고 남자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부리나케 달려나갔다
남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나는 맞고 있던 남자에게 다가가 싱긋 웃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네?네..네!"

아까 내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약간 긴장하고 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 같은 놈들한테만 까칠하니까요"
"네.."

그말을 하나 남자는 긴장을 풀었다

"저기..근데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도 됬을텐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됬어요. 그냥 지나칠수 없었던것 뿐이에요"
"그렇군요...아!!"

남자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좋은 생각이 났다는듯 손가락을 튕겼다

"저기,저희 조직을 맡아주세요!"
"???"

이게 무슨소리야? 갑자기 다른것도 아니고 조직을 맡아달라니?

"실은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비밀조직의 보스입니다"
"비밀조직?"
"네.저희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비밀조직입니다. 가끔은 국정원 같은곳과 연동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아까처럼 날뛰는 일진들을 혼내주거나 각 구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을 해결하기도 하죠. 저희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어서 가끔은 잘나가는 일진들도 추천으로 저희 조직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는 비밀리에 시험을 통해 그사람의 성격테스트를 하고 실력테스를 합니다. 거기에 통과하면 저희 조직에 들어올수 있죠"
"그런데..그런 조직 보스의 아드님이 왜 여기서 맞고 계셨어요?"

보통 그러면 싸움 잘하지 않나?

"실은..전 체력이 약골이라 싸움은 못해요..하하"
"그런가요..근데 왜 저한테 조직을 맡아달라는 거죠?"
"그게..저희 아버지가 요새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몸이 약해서 요새 보스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원중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저는 어릴때부터 그런사람들을 많이 봤기에 강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오로라?같은것들을 잘 알아봐요. 당신한테선 누구보다 강한 기운이 나왔어요. 부탁입니다. 맡아주세요!"

그가 허리까지 굽히며 부탁하자 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알았어요. 어쩔수 없죠뭐"
"정말이요?감사합니다!그럼 빨리 저희 조직으로 가죠"

그는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했고 곧이어 검은색 외제차가 왔다.
나는 남자를 따라서 그 차를 탔고 그 조직으로 갔다

'오늘 부모님은 늦게 오시니까 괜찮겠지. 혹시 모르니까 나이아스 한마리를 붙여 놔야겠다. 부모님 오시면 알려달라 그래야지'

***
"도착했습니다"

조직은 비밀조직이라 그런지 산속에 위치했지만 규모는 어마어마 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 엘레베이터를 탔다
내가 얼굴 노출을 꺼려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은것이다.
엘레베이터는 초고속으로 이동해 금세 꼭대기에 도착했고 나는 엘레베이터에서 내려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다.
보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비서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옆에서 남자는 신이 난 얼굴이였다.
곧이어 보스가 나왔고 남자는 보스한테 아버지!라며 달려가 안겼다

'갑자기 엘뤼엔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내 아버지는 따로있는데..'

"어서와라 아들. 이 사람이 네가 데려온 사람이니?"
"네! 골목에서 누가 나 때리는걸 이분이 구해줬어요"
"누가 널 때려?그놈 누구니,아비가 해결해주마"
"이분이 충분히 혼내줬어요.괜찮아요 아버지"
"그래?이거 아이가 신세졌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널 다음의 보스로 선택했나보구나."
"별말씀을요. 저는 그저 때리는걸 못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을 구해줬잖니. 게다가 우리 아들은 강자를 보는 눈이 나보다도 뛰어나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너를 강하게 추천하더구나. 우리조직의 왠만큼 강하다는 조직원들한테도 강하다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너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겠지. 어떠니? 우리 조직을 이어받을 생각은?"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했으니까요"
"고맙구나. 내가 몸이 약해서 이이상은 이끌기 힘들어러 말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번째로 제 얼굴은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단 제가 인정한 소수의 사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건 상관없다.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국정원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사람과 만나서 협력 요청을 받아야 하거든"
"뭐..한사람 뿐이면 상관 없습니다. 두번째로 조직의 활동은 오후 4시 이후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전엔 저도 해야 할일이 있어서요"
"아,너도 학생으로 보이는데 학교를 가야겠구나. 그것도 허락하지. 그 외에 다른건 더 있니?"
"그것뿐입니다"
"알았다.앞으론 내 비서가 너에게 해야할일을 알려 줄거다. 내 최측근인 만큼 믿을만 한데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정돈 괜찮겠지?"
"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됐다.이제부턴 네가 우리조직의 보스다. 우리조직을 잘 부탁한다"

참 간단하네.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바로 넘기다니.

나는 그 후에 조직에대한 것을 인수인계 받았고 나은 왔던 차를 타고 아까의 골목으로 돌아갔다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하하,얼굴도 예쁘신데 성격도 좋으시네요"
"가,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웃는 얼굴에 잠깐이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칭찬을 부모님 외에 처음들어서 그런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싱긋 웃으며 말하곤 돌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내가 마법을 푼 그장소로 돌아간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로 우리집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텔레보트했다

<이동>

골목으로 이동한후에 나는 재빨리 집안으로 들어갔다.

"후아..힘들다"
"그러게. 비밀조직 보스라니, 대단한데?"
"라,라세크?보고 있었어?언제부터?"

"니가 그 남자애 구해줄때부터~"

멋있던데?라고 말을 덧붙이는 라세크
나는 괜히 쑥스러워졌다

"히히. 앞으로 잘해봐야지,뭐"
"큭큭,나도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럼 나야 고맙지, 부탁한다 라세크"
"물론~"

우리는 그 후로 계속 수다를 떠났고 라세크는 또다시 수행천사에게 잡혀갔다
그리고 때마침 부모님이 오셨다

"청화야~우리왔다~"
"다녀오셨어요~?"

나는 그대로 달려나가 부모님에게 안겼다.

"오늘하루도 재밌었니?"
"네!!무지무지 재밌었어요~"
"아이구~기특한것. 이쁘기도 해라~"
"헤헤"

'앞으로 잘해봐야지!'

그렇게 후에 세계 최대의 비밀조직 CH조직의 시작이였다

***

나는 그후로 13년이 흘러 17살이 되었다.
오늘은 내가 다니는 청산고등학교의 입학식날이다
라세크도 오늘은 나의 입학식날이니 마법으로 몸을 숨기고 들어와서 본다고 했다.

"그럼 먼저 가있을께요~"
"그래,우리도 금방 갈께~"
"입학식 시작은 10시부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곤 문을 열고 나갔다.
부모님은 학교까지 기사불러서 데려다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었기에 거절했다

"어?청화야~"
"아,안녕 수진아"

내가 웃으면서 말하자 수진이와 같이 오던 친구들도 입이 벌어졌다

"왜그래?"
"음..어..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의 그 외모는 완전 사기야"
"게다가 그얼굴로 웃으니 더해"
"파괴력이...굉장한데?"

저 반응인 이유는 내가 자라면서 내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원래 17살 쯤의 모습이였으니 지금은 완전히 내 모습이였다. 하지만 원래의 물빛 머리와 눈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머리와 눈은 원래의 연갈색 머리에 검은 눈으로 했고 난 원래 무성이기에 체형도 여자체형으로만 바꾸었다

"후훗, 근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지 않을래?우리 이러다 지각하겠어"
"아,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제 알았구나. 지각 5분전이라는걸

"젠장!!청화,소라,다빈 전부 뛰어어어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죽어라고 달렸고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신호등을 건너 다행이 늦지 않게 도착할수 있었다.
우린는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반배정을 확인했고 운좋게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반이 되었다
내친구들의 이름은 김수진,박소라,이다빈이였다.
내가 어릴때,물론 겉으로지만 4살때 이마을에 이사오고 나서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사귄 친구들이였다.
우리는 그대로 마을에서 지내며 성장했고 여전히 죽마고우로써 항상붙어 다닌다.

우리는 체육관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휴~아슬아슬했다~"
"그러게,늦을뻔했어"
"청화,넌 집도 부자면서 차 안타고왔어?"
"뻔하지~보나마나 눈에 띄기 싫다고 안타고 왔지?"
"하하,잘 알고 있네~"
"큭큭,얘 은근히 신비주의라니깐?"
"남이사다,뭐"

그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만큼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들은 처음엔 안믿었지만 내가 우리집으로 데려오자 믿을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즐겁게 수다를 떨었고 입학식 연습시간이 지나 진짜 입학식 순서가 됐다

"그럼 입학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입학식은 그나마 금방끝났고 우리는 담임선생님을 따라서 1학년 3반으로 갔다

"다들 아무데나 앉아. 자, 내이름은 박서화고 앞으로 너희들을 1년동안 담당할 담임이야. 앞으로 잘부탁한다"
"네~"
"그럼 이만 다들 해산~"

우리는 우르르 빠져나갔고 나도 부모님과 함께 교실을 나왔다

"어휴~우리딸이 벌써 고등학생이야~"
"그러게,시간참 빠르네~"

부모님은 나를 많이 아껴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암~졸립지만 일은 해야겠지?"

나는 책장 앞에서서 말했다
"음성인식 시스템. 확인 완료"
그러자 책장이 옆으로 밀리면서 뒤에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이 나왔다
내가 계단아래로 내려가자 책장은 자동으로 닫혔다.
계단을 계속해서 내려가자 작은 문이 나왔고 그 문을 열자 커다란 공간이 하나 나왔다

아까 그 책장과 이 공간은 내가 물을 사용해 지하를 뚫어 마법으로 만든 공간으로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마법으로 주변에 강하게 결계까지 쳐놓았다. 또 집밖으로 나가는 탈출구까지 있었다. 게다가 이 공간은 조직본부에 있는 보스,즉,내방까지 연결이 되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자 오늘 올라온 서류들이 보였다.
아마도 내가 없는 사이에 비서가 갔다 놓았나 보다
그녀는 내가 만들어준 통로를 통해 항상 서류를 가져다 준다.
원래라면 옆에서 도와줄텐데 오늘은 바쁘구나

나는 하는수 없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과 해결. 그리고 조직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나는 목록을 들춰보다가 어느순간 손을 멈추고 말았다.

"얘들은.."

내 친구들이잖아?

후보 목록중에 내 친구들,수진이 소라,다빈이가 있었다
이녀석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무술을 많이 해서 싸움으론 우리나라 원탑먹은 애들이다. 한마디로 실력은 수준급. 게다가 친구인 내가 보증하는데 성격도 좋다.
나는 주저할것 없이 그 애들을 시험 없이 바로 통과시켰다. 시험으로 따지면 이미 오래전에 통과했으니깐

난 그 후에도 후보목록과 각종 사건사고. 그리고 정부에서 비밀리에 협조요청한 서류들을 처리한후 비밀통로를 통해 조직본부에 있는 내방으로 가져다 놓았다

"담희야"

이담희. 내 비서의 이름이다

"네. 보스"

내가 부르자 담희가 들어온다. 담희는 13년전에 17살 이였으니 이젠 30살이다

이거 협조요청 들어온거 실력좋은애들로 추렸으니까 요원들 파견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지역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 굳이 본부에서 조직원 투입할만한 사건은 아니니깐. 그리고 이번 조직 입후보들 중에 여기있는 이 세명은 통과시켜. 내 친구들인데 성격은 좋고 실력도 뛰어나. 내가 보장하니까 믿고 시험안봐도 되. 알았지?"
"알겠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전해준 다음 그뒤로도 몰려오는 서류들을 계속해서 처리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는 급하게 집으로 가야했다
나이아스가 부모님이 내 방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준 것이다.

"담희야 나 집에 가볼게!"

나는 서둘러서 비밀통로로 들어가 내방으로 텔레포트했다
나가 방으로 이동하자마자 부모님이 내방으로 들어왔다.

"청화야, 저녁먹어야지"
"네~금방 갈께요~"

그나마 정령왕의 몸이라 숨이 차지 않아서 다행이였다

나는 저녁을 먹고 그 뒤로는 핸드폰을 조금 하면서 놀다가 이내 잠이들었다.

***
"..야"
"..."
"청화야!"
"헉!네!"
"벌써 7시 넘었어. 밥먹을 시간 있겠니?"
"벌써요?밥은 못먹을거 같애요 가는길에 사먹을께요~!"

나는 서둘러서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겨 학교로 달렸다.

"헉헉,세이프~!"
"오~청화~아슬아슬했어~"
"달리기 하나는 알아준다니까. 완전 빨라"
"큭큭,청화 너 다빈이 버리고 왔냐?"
"버..버린건 아니지!"
"푸하하하"

내가 말을 더듬자 수진이가 크게 웃는다

"너 자꾸 웃을래"
"아~ 미안미안.큭큭큭"
"계속 얘기하는건 좋은데 이만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어떻겠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하자 뒤에 있는 선생님이 이야기한다

"네~"

우리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고 선생임른 아침조회를 시작했다.

"자~입학 얼마후엔 모의고사가 있는거 다들 알고 있지?모래에 있으니까 준비들 잘 하고 다들 빨리 나가고 싶지? 이만 해산~"
"네~"

우리는 항상 했던대로 모여서 이야기 했다

"아~모의고사라니이~"
"평소하던대로 나오는거야~"
"청화 넌 공부 잘하니깐 그런소리 하는거야"

난 망각의 축복이 없으니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다. 그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날듯이 기뻐했다

"오늘은 내가 공부 알려줄게~"
"부탁한다. 너가 알려주면 성적 오르니깐"
"에에~청화~아두 해줘 나두~"
"오케이~다 해줄게 이따 우리집으로 가자~"
"아싸~청화집이다~"
"푸흡!그렇게 좋냐?"
"청화 니집가면 간식거리가 많아서그래~"
"헐~진짜야 소라야?"
"예전에 자기 입으로 말했다니까~"
"맜있잖아~킥킥"

그말을 듣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보고 이를 갈고 있는 한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박승희

어릴때 엘을 괴롭히고 누명을 씌운 그녀였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엘이 보스로 있는 비밀조직 CH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탐하고 있었다.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선 조직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기에 간신히 조직원 한명이 다니는 이 학교를 찾아내 입학했다.

'그런데 저 기집애를 보다니'

어릴때 내가 저 자리를 뺐었는데 왜 넌 또 사랑받고 있는거야!
다시 저자리를 빼았겠어
모든이들에게 사랑받는건 내가 되어야해!

그녀는 엘을 모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은 그동안 인망을 두텁게 쌓아놓았기에 그 사이를 갈라놓기 쉽지 않았다. 승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상을 쓰며 자기반으로 돌아갔다

***
나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어제 내 친구들한테 조직가입 의견을 묻자 세명 모두 승낙 한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실력으로 몇달사이에 간부자리를 꿰찼고 나는 이제 내 정체를 들어내야 겠다고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여느때처럼 친구들과 같이 하교했다. 그런데 내 앞에 처음보는 여자애가 서있다

"??넌 누구야?"
"훗..날 모르는건가?13년전 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게 뭔소리?난 널 처음보는데?

"너 누군데?"
"하!모르는척 발뺌하기야?모른다면 친절하게 알려줄게. 니가 13년전 언덕위에서 밀어버렸던 최승희라고!!"

!!!최승희..날 모함해 죄를 뒤집어 씌운 그놈말이지..

"최..승희..?"
"이제좀 기억이 나나 보지?"
"청화야 누구야?니가 언덕에서 밀었다는건 또 누구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리고 최승희?"
"왜!"
"소리지르지마. 기분 더러워"

내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싸늘하게 말하자 박승희는 물론이고 내 친구들까지 깜짝 놀랐다

"너..너!"
"닥쳐. 그래..내가 널 어떻게 있겠니. 나에게 똑같은 끔찍한 고통을 한번 더 선사했던 너를."
"뭐?내가 뭘 어쨌다는...헉!"

승희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 그대로 비틀었기 때문에

"꺄악!너..너 이거 당장놔!이거 후회하게 될꺼야!!"
"왜. 그 잘나신 아버지한테 이르시게?안됬지만 그건 실패야. 여긴 사람들이 없고 니 손목도 빨개진게 아니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니니 나는 모르겠다로 일관하면 그만이거든"
"윽!!그래도 넌 날 건드리는 걸 후회하게 될꺼야!!"
"내가 왜 후회를 해?"
"너..너,CH조직이라고 알아?!"
"!!!"

조직 이름을 듣자 내 친구 세명의 표정이 갑자기 하얗게 질린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조직은 비밀조직인데 조직원이 아닌 녀석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조직에 대한 정보가 새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조직에 대한 정보가 새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하!표정을 보니 모르나보네. 잘들어. CH조직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밀조직이야. 국정원과도 교류하고 전죽으로 손이 가 있는 거대한 조직이라고"
"근데?"
"그..근데 내가 그 조직 보스랑 친하거든?너 나 건들면 그냥 죽음이야. 걔가 날 얼마나 아끼는데!

못된놈들의 특징. 이런놈들은 항상 통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다

내 친구들의 표정은 갈수록 경악에 찼지만 갈수록 난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풋.푸흐흣, 푸하하하하하!!아하하하!!"

나는 크게 웃었고 승희와 내 친구들은 의아해 했다

"뭐..뭘그렇게 웃는거야!!"
"푸하하!아~진짜 웃기네.야,너 헛소리좀 작작해라"
"진짜거든?내말이 어딜봐서 헛소리야?!"
"푸흐흣.당연히 헛소리지. 그야.."
"..그야?"
"그야 난 너같은 놈을 아낀적은 전혀 없거든. 오히려 엄청 싫어하지"

휘이잉

순간 바람소리가 들릴정도로 조용해졌고
내 친구들과 최승희는 내말이 무슨뜻인지 알아차렸는지 표정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 설마 너!"
"맞아. CH조직의 보스가 나야"
"어떻게 그런일이..!"
"못믿겠으면 증거하나를 말해줄까? CH조직의 CH는 내 이름의 이니셜이야. 이제 좀 믿겠니?"
"그럴..수가.."
"알아 들었으면 꺼져"

나는 그대로 승희의 손목을 놓고 등을 밀어 앞으로 보냈다. 승희는 얼떨떨한지 그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돌아갔다.
갑자기 내눈앞에 나타난걸 보면 또 질투때문에 내자리를 뺏으려고 했겠지.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결국 동정표로 승부하려 했나보다
나는 돌아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궁금한거 많을텐데 일단 집에가서 얘기 하자"

나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차까지 불러 집으로 이동했고 내방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날이였다
나는 차를 내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일단 내가 조직의 보스였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어...맞아..너가 우리조직의 보스였다니."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나는 예전에 보스 아들을 만난것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 했다.

"와..대박.."
"몇달전에 너희 추천 목록이 올라왔길레 내가 시험 보지도 않고 통과시킨거야. 이미 예전에 통과한거나 마찬가지니깐"
"그럼 아까 그 승흰지 뭔지 하는 놈이 한말는 뭐야?"
"아..그거 말이지?"

나는 4살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일을 설명했다
물론 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분개했다

"그거 완전 미친거 아니야?!?!"
"그러게?4살짜리 맞아?왜그렇게 영악해?"
"완전 싸이콘데?"

친구들은 각자 온갖욕들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나는 말리지 않고 가만히 차를 마셨다.
친구들의 분개가 이만 끝날때쯤에 내가 말했다

"자~그럼. 얘기 다 했으니까 이만 일 하러 가볼까?"
"일?무슨일?"
"따라와봐~"

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책장앞에서서 똑같이 말했다.

"음성인식 시스템. 확인 완료"

그러자 마찬가지로 책장이 옆으로 밀렸고 계단이 나왔다

"대~박!!"

친구들은 당연히 놀랐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엔 아직 이르지~
나는 계단을 내려갔고 친구들은 따라왔다
그러자 나의 비밀의방이 나왔고 나는 친구들에게 잠깐 구경하고 있으라 한뒤 재빨리 서류를 처리 했다

"서류 다했으니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여기서?엄청 먼데?"
"다 방법이 있어~"

나는 비밀통로로 그들을 안내 했고 그들은 또 놀랐다. 분명 오래걸려야 하는데 순식간에 본부로 이동한것이다.

나는 담희를 불러 서류한것을 넘겨주고 방에서 이야기를 했다.

"와...혹시 아직까지 놀랄거 남았니?"
"아니?이제 끝났어"

"아니?이제 끝났어"
"청화야,나 아까부터 하고 싶은말 있는데.."
"??뭔데 수진아?우악!"
"너 진짜 짱이야!!"

수진은 갑자기 나를 안았다.
그런데 소라와 다빈이도 동시에 나를 끌어 안았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퉁켜 안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동안 회포를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꽤 오랬동안 있었는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벌써 어두워 졌네. 데려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우리가 누구니?CH조직 간부들 아니니?"
"푸흐흡!!그건 그렇네. 아무튼 잘가~"
"내일보자~"

방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아~참 일이 많은 하루였어~피곤하다"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다

***
다음날

"으아아악!!늦었다아아아!!"

지금시간은 7시 30분
엄청난 속도로 옷을입고 나니 7시 35분이다

"어쩌지?이거 지각인데..할수 없지!!차타고가야지!!"

나는 기사 아저씨를 불러서 재촉한 결과 차를타고 단 10분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잘 다녀오십시요 아가씨"
"다녀올께요 아저씨~"

나는 그대로 학교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행이 지각은 면했다.

"지각은 아니다~"
"넌 어떻게 맨날 지각할뻔이냐, 킥킥"
"소라 넌 집이 바로 앞이잖아"
"그럼넌 집이 멀어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차를 타고 왔니?"
"30분에 일어나서 어쩔수 없다고"
"그래서 지각을 간신히 면했으면 이만 자리로 돌아가지 그러니?"
"앗!네!"
"너희는 왜 맨날 앞문앞에 서서 얘기하니"
"그..그러게요,하하"
"암튼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 빨리 자리에들 앉아라"
"공지사항이요?"
"너희가 좋아할만한거지~"
"쌤~빨리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반에 전학생이 한명 왔다. 우리반에만 온건 아닌데 우리반으로 온 친구는 한명이다."
"쌤!여자에요~남자에요?"
"이쁘게 생겼어요?잘생겼어요?"

전학생이 오면 항상 하는 질문들이지
여자냐 남자냐 이쁘냐 잘생겼냐
전학생올때의 단골 질문들

나는 웃음이 쿡쿡 나왔다

"자~질문은 그만하고 이만 들어오렴~"

'누굴까?궁금하다'

하지만 곧바로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 앉았다
왜냐하면 전학온 사람은

"반가워. 난 트로웰이야"

바로 트로웰이였다
===
공백제외:9575
이번에 트로웰을 만나고 끝났네요~
이제 다음편부턴 엘뤼엔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헬마스터
와아!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0:03 답글쓰기

ko 작성자
와아~감사합니당~
2020.06.19. 06:03 답글쓰기

레이테
너무 재밌어요! 원래 배신물 많이 안보는데 되게 재밌네요! 재밌게 잘 봤어요!
2020.06.19. 00:15 답글쓰기

ko 작성자